

SINCE 2009

SEOUL ROSE CLUB NEWSLETTER

봄여름가을겨울호 | 2018. 12. 15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표지 장미: *Rosa spinosissima* (Scotch Rose)

/CONTENTS/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 4 로자리안 : 홍지경 로자리안
- 6 서울장미원
- 10 카츠히코 마에바라의 코펜하겐 세계대회와 서울로즈클럽 방문기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 14 오스트레일리아 장미우표
- 16 후쿠야마 장미축제
- 21 백설기 양금 플라워 케이크
- 24 우리 고전에서 엿보는 장미 그리고 장미문화

장미 정원 Rose Gardens

- 28 기차마을 장미공원
- 32 기부정원 - 2018 Peace Rose Garden

발행일자 _2018. 12.15

편집인 _김옥균, 김수연, 이성현

편집디자인 _김수연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접수 _

문의 ;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 36 장미의 사계 Chichy's Rose Garden : 여름 화분장미 관리하기
- 40 장미품종소개 : 콜로살 메이디앙 (Colossal Meidiland)
- 42 일본장미품종 : 라 페리보릿 (La Favorite (HT))

장미 식재와 경관 Rose Planting & Landscape

- 42 장미정원 디자인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 46 2018 WFRS Copenhagen Convention 방문기
- 55 서울로즈클럽 소식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홍지경 로자리안을 만나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홍지경 로자리안을 만나다!

지난 4월 21일 기자는 서울로즈클럽 간행물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는 뜻 밖의 전화를 받았다. 5월 토요일에 서울로즈클럽의 모임이 있는 너싱홈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홍지경 로자리안의 전화였다. 첫 대면부터 주눅 들지 않고 만남에 나와 주었던 홍지경 로자리안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다음은 홍지경 로자리안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어린 시절부터 장미를 좋아 하셨다는 데 어린 시절의 장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A. 여유롭진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어린 시절, 제 흐릿한 기억 속 자리한 장미는 적벽돌과 조화를 이룬 붉은 덩굴장미였습니다. 붉디붉은 덩굴 장미가 활짝 피어나면 그 공간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자매들의 사진 배경이 되어 주었고, 아직도 사진첩 속 자리하고 있습니다. 흑백사진이어서 장미의 색감은 흰색과 검정 그리고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음속 장미는 그 어떤 장미보다 밝고 붉은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흔하디 흔하게 심어둔 붉은 덩굴장미 때문일까요, 장미는 저에겐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봉선화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Q. 그 후에 장미를 키워 본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A. 그러던 중 오롯이 제가 속한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된 장미는 또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이게 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특징과 특성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저 모두 장미라는 한 가지 식물로만 인식되었고, 그 하나하나 장미의 개별적인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오롯이 집과 주변 배경과의 조화로운 그림만을 염두 해 두고 식재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미는 그저 남의 집 담벼락에서 눈과 코로 감상만 하던 그림 같은 존재에서, 계절별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생명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예에 무지했던 저는 생명으로 다가온 장미에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가뭄에 시들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장미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식재로 각종 병충해에 시달렸고, 전정이 되지 않은 가지들은 서로 뒤엉켜 태풍에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방역은 지역 농자재상에서 구입한 진드기 약을 뿌려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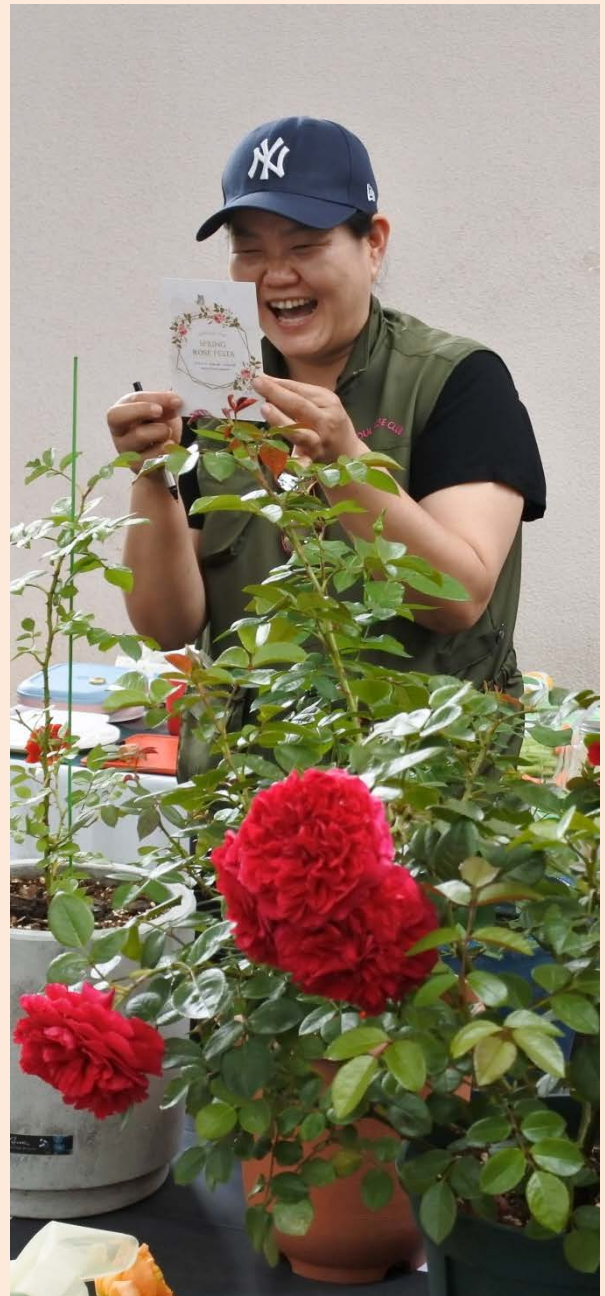
Q. 그럼 서울로즈클럽 회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달라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책만으로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던 차에 서울로즈클럽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즈클럽을 알게 되었고 장미의 무궁무진한 세계로 입문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로즈클럽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시나요?

A.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장미, 장미에 대한 지식이 거의 백지와 같은 저에게 서울로즈클럽은 장미사관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배움에 끝이 없듯이 영원히 졸업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홍지경 로زاری안의 장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로즈클럽이 장미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제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홍지경 로زاری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글 : 황보순 로زاری안

서울장미원의 세 모녀 로자리안, 김연숙, 김아람, 김희람

인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장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장미원 식구들입니다.

처음 김옥균 대표님의 소개로 정원문화축제에 참석한 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임이 있음을 느끼고 꽤 인상 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너싱홈의 장미정원에 초대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농장에서 매일 보아오던 장미도 아름다웠지만 적절한 장소에 자리하여 알룸, 클레마티스, 디기탈리스, 아이비등 다른 식물들과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보니 더 없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차를 나누거나 각자의 정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정보교류를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서울로즈클럽에 감사 را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공부와 교류를 통해 좀더 장미 정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장미를 통해 만난 인연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향기로운 만남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서울장미원 일동.



글; 김아람 로자리안

서울장미원의 발자취와 역사, 어제와 오늘을 소개합니다

서울장미원은 1996년부터 약 20여 년 간 장미를 재배 생산해온 장미 전문 농장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아진 영국장미 데이비드 오스틴 외에도 수 십 가지 종류를 보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품종의 보급에 힘쓰려 노력 중입니다. 2012년 베어 트리 파크 장미공원, 2014년 서초 힐스 아파트 장미터널 식재 공사, 2017년 서울랜드 로즈 가든 조성하였습니다.

세 모녀에게 장미농장이란?

김아람: "엄마이자 사장님에게는 일 중독을 자연스럽게 불러오는 마력의 장소인 듯하다. 봄철만 되면 없던 체력도 샘솟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장미농장은 고되지만 동시에 살아갈 힘을 주는 고마운 곳이다. 장미를 선택했던 것에 후회해 본 일이 없다는 사장님의 말씀. 딸로써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반면 큰딸인 나에겐 애증의 일터이다. 봄이면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정말 많다. 물주랴 약주랴 손님 보랴 정신 없는 사이클이 마구마구 돌아간다. 육체적으로 많이 고단하다. 하지만 중간중간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귀엽고 경쾌한 새소리, 어느 샌가 나타나서 여유부리는 고양이를 만날 때면, 한 순간 행복이 깃든다. 그러다 여기저기 꽃망울이 터지고 드디어 장미다운 장미의 모습으로 농장이 총천연색으로 물 들 때는 그 동안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서울장미원은 힘들지만 기쁘고 보람찬 나의 직장!!"



김희람: “어릴 적 나에게 장미는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가시가 있어 다루기 힘든 꽃나무로 인식돼 큰 애정이 있지 않았다. 어깨너머로 부모님의 이마에 맺히는 땀이 막연하게 고생스러워 보이기도 했었다. 그래서일까 사실 장미와 친해 지는건 쉽지 않았지만 어느 샌가 내 손에는 꽃삽과 거름이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헛.. 멀게만 보이던 장미가 나도 모르게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일까? 장미가 아프면 ‘빨리 낫자’ 하면서 약도 주고, 거름도 준다. 힘들어지면 ‘넌 군것질을 많이 하니!?’ 하며 투정부릴 때도 있지만 예쁘게 핀 꽃을 보면 코부터 대고 향기 맡기 바빴다. 아팠던 장미가 다시 예뻐지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서울장미원은 희로애락 이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 그 땀방울이 지금은 멋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겨울철 묵은 잎을 제거하는 작업

겨울철 장미나무는 휴면기 이지만, 온실 안에서는 봄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장미원의 비전

현재까지는 서울과 의왕에 1200평정도 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생산 및 유통 하고있다. 도소매 모두 하고 있지만 조경업체나 꽃집 등을 상대로 하는 도매가 대부분이다. 종종 농장으로 찾아오시는 개인 고객분들이 계신데 비교적 신경을 못써드리는 경우가 있어 죄송스러울 때가 많다. 농장 측 에서도, 소비자 측 에서도 도소매는 분리되어야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상의 상품만을 소규모로 전시 판매할수있는 판매장을 따로 낼 계획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장미를 이용한 정원문화를 널리 대중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다. 또한 장미의 많은 품종과 생육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서울로즈클럽을 통한 스터디와 교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다. 과도기를 겪고 있는 서울장미원은 장미를 사랑한다.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사랑한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 나쁜사람이 있을까? 서울장미원은 앞으로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장미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미농장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세 모녀의 작은 꿈이다.

우리에게 서울로즈클럽이란?

관점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삶의 쉼표?! 우리는 생산자이자 판매자 이다. 하지만 서울로즈클럽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장미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장미가 하나의 소모품이 아닌 기쁨과 힐링 그 자체일수 있음을 느낀다. 우리농장에서 시집가는 장미들이 어디로 가서 얼마나 사랑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존재인지 세삼 느끼게 된다. 또한 감사하게 된다. 이리도 사랑 받는 장미꽃밭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장미덕분에 장미에 조예가 깊은 분들, 또 장미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일 잘하고 있나 감시중인 & 즐고 있는 감시견



탐스럽게 피어준 장미

사람과 장미 Rosarian

코펜하겐 WFRS 세계대회와 서울로즈클럽 방문기

**카츠히코 마에바라 (前原克彦)**

일본 Sakura Rose Society 회장
The City of Sakura Rose Garden 대표
일본 장미문화연구소 원장

코펜하겐으로 가는 도중, 한국에 들렀습니다. 방문목적은 Old Roses & Climbers 클럽 회원이기도 한 친구 김옥균 선생이 관계하는 서울로즈클럽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 가을에 서울로즈클럽을 모체로 한 한국장미회가 설립되어 세계장미회연합에 가맹할 예정입니다. 서울로즈클럽은 현재 회원이 30명으로,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작지만 풍요로운 로즈 라이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클럽 회장인 김회장은 국제관계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서울 교외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안에 장미원이 있어, 한국에서는 진귀한 영국품, 그리고 널리 퍼진 자연형태,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가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다른 쪽에는 작은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만, 클럽 멤버들이 모여 강습회나 파티를 즐기는 클럽의 주요 거점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로즈클럽 멤버들과의 교류 후, 서울 시내의 장미를 견학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클럽 멤버인 황보순 선생의 안내로 커피해피 커피숍을 방문하였습니다. 길목에 있는 가게의 대부분은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부의 바람 구멍으로 덩굴장미를 기르고, 창문까지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목제의 화분 커버에 담긴 화분에 덩굴장미가, 대나무로 만든 아치에 유인되어서, 자연스러운 정취가 풍기는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숍의 단골 손님이었던 김회장의 아이디어로 장미 작전이 시작되어, 회원이 총 출동되어 이 장미맨션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주인장 양철안 선생의 이야기로는 장미를 심으면 이웃의 주민들이 이 장미에 대단히 감동하고, 주변 분위기가 활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로즈 파워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서울로즈클럽 멤버의 장미원을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만, 모든 회원들이 조용하면서도, 위트가 많고 장미를 정말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의 조직을 크게 할 생각은 당분간 없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내실 있고 회원들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활동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연유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서울장미회는 회원들의 입회추천을 받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해 보고 싶었던 에버랜드의 장미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교외에 20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 판 디즈니랜드입니다. 예전에는 유원지 장미원입니다만, 아주 관리를 잘해서 훌륭한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젊은 장미원 책임자 이준규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원예를 배웠다고 하면서 서서히 자연풍의 장미원으로 바꾸어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장미인과의 교류, 문화를 체험한 훌륭한 4일간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서울로즈클럽과 사쿠라장미회의 교류 디너파티를 열 것을 약속하고 목적지인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장미총회에서는 3년마다 그리운 친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총회 도시인 리옹에서도 만났습니다만 이파 슈미트씨의 오랜만에 만난 모습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2009년의 밴쿠버 세계대회에서 훌륭한 강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1년의 일본 사쿠라에서의 국제헤리티지로즈 회의에 강사로 제가 초대했습니다만 회의가 일년 연기된 사이에 남편이 타계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2012년의 강의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헝가리 출신으로 같은 고향 장미 육종가 게루게리 마르크의 장미와 장미 유산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헝가리에 마르크기념 로즈가든을 개인 경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쿠라 로즈가든 초원의 언덕 장미원에는 게루게리·마르크가 작품을 내었던 센트·엘리자베스를 세주를 일본장미회 경유로 입수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리옹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그 구상을 열심히 이야기하였으며 많은 자료를 받아서 코펜하겐에서의 재회를 약속했습니다. 로젠포성의 장미원을 견학하고 있을 때 이파씨가 보여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로부터 마르크 기념 로즈가든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대한 안목으로 이 사업에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녀는 아무래도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의식이 멀쩡할 때 사쿠라 로즈가든을 다음 세대에 연결시키는 계획을 확실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독일의 헬무트와 리나테·페타스부부입니다. 그들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03년에 독일 상거하우젠에서 개최된 헤리티지 로즈 회의였었습니다. 동서독이 하나되어 옛 동독의 거대한 장미원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던 그 당시는 서·동독과의 격차가 있어 동독의 도시는 들어가면 어둡고 초라한 분위기였습니다. farewell 파티 때였다고 생각되지만 임시로 설치된 큰 텐트에서 디너파티가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은 독일인들로 메워져 있어서 우리 자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독일인 부부가 소탈하게 말을 걸어 줘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부와의 첫 만남입니다만, 그들도 처음으로 장미회의에 참가했다고 해서 2006년의 오사카 세계대회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흥미를 가진 것인지 오사카 세계대회에 와주었습니다.

그 후 전세계의 대회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부부는 언제나 사이 좋게 장미를 사랑하고 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인 헬무트씨가 상당히 신체가 부자유스러워서 물어보니, 허리와 발이 아파서 3회 수술을 했다고 하고 심장도 상당히 쇠약해져 있으므로 장미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이번은 비행기로 45분밖에 안 걸려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이런저런 생각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에서 아침 식사에 참석했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상거하우젠에서 일본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구 독일의 사람들은 이방인에 친숙해있지 않아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라도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건 것이라고 그 부부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마음 상냥한 부부입니다. 나중에라도 건강하면 어디든 다른 회의에서 만나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서울로즈클럽과 사쿠라장미회의 디너 파티는, 별 3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사쿠라장미회의 멤버에는 프랑스식당의 오너가 있는데 그로부터 코펜하겐의 레스토랑은 현재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어서, 참신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원 15명이 들어가는 개별 룸은 이 레스토랑 밖에 없다고 해서 이탈리아 출신의 가르송의 훌륭한 연출과 더불어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의 멤버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20대의 자매가 참가했습니다. 클럽의 김수연 선생의 어머니도 참가하고, 우연히 그날이 80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80세의 축하를 산수(傘壽)라고 합니다. 우리는 14점시, 와인도 요리에 맞춰서 14종류, 모두가 참신해서 훌륭했지만, 여하간 시간은 걸립니다. 7시부터 처음 기다린 디너는 디저트가 나올 때에는 12시를 돌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온 것이 1시 좀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실 수 없이 택시로 호텔에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6시간이나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가 활기를 띠어, 웃음에 휩싸인 파티는 오랜 만이었답니다.

이번의 세계대회에서도 다양한 만남이 있었고,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고,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2024년의 후쿠야마시에서의 세계대회가 정식으로 결정되고 한국장미회의 발족이 발표되고 그날 세계장미회연합의 가맹이 승인되었습니다.

장미의 세계도 점점 발전해 나아갑니다. 긴 역사를 가지는 일본장미회가 평의위원회·이사회를 비롯해 각 위원회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번역 유병국 로자리안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우표

1840년 영국에서 여러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우표인 “페니 블랙”이 처음으로 등장한 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우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번째 우표는 1913년 1월 2일에 발행되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로자리안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장미를 묘사한 4개의 우표 발행을 위한 명예로운 일을 수여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우표에 선택된 장미들은 ‘마조리 아설튼(27센트)’, ‘임프(40센트)’, ‘미니 왓슨(65센트)’, ‘새틀라이트(75센트)’이다.

빅토리아 주의 시골 동네인 맨스필드에 살고 있던 식물 삽화가 베티 코나베르가 우표를 디자인했다. 그는 1974년에 출판된 저서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의 야생화”로 유명했다. 이 책의 원본은 빅토리아주 문화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라 트로브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



4가지 장미들은 각기 다른 색과 형태 및 향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전된 하이브리드 장미들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마조리 아설튼’은 론 벨이 ‘미스터 샤스트라’와 ‘평화’를 교배시킨 종이다.

‘미스터 샤스트라’는 약간의 핑크색이 더해진 높게 자라는 하얀 장미인 반면, ‘평화’는 꽃잎 끝 쪽이 핑크색인 노란 장미다. 교배의 결과물인 ‘마조리 아설튼’은 향긋한 옥수수색의 노란 꽃을 피운다. 이름은 론 벨의 여자형제를 기리기 위해 따왔으며, 로열티는 빅토리아 주 장미 협회에 있다. 론 벨은 고위관리직에 종사하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오스트레일리아 장미의 주요 브리더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1967년 장미 브리더 일을 시작했고, 그의 첫 번째 작품은 ‘마조리 아설튼’이며, 로열티는 빅토리아 주 장미 협회로 간다. 그는 ‘에이프릴 해머’, ‘아워 로자몬드’, ‘자넷 머레이’와 같이 오늘날 많이 수입되는 장미를 기르기도 했다. ‘자넷 머레이’의 로열티는 적십자로 간다. 론은 1988년에 개최된 세계 장미 컨벤션을 위해 ‘바이센테니얼 장미’를 기부하기도 했다. 1991년, 그는 ‘장미 재배를 위한 아마추어 가이드’를 제작할 즈음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재배자 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장미 재배로 공로를 인정받아 론은 1999년 영국 여왕의 국제적 상(Queen Mother's International Award)을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여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우표



조지 다우슨이 재배한 '임프'는 '평화'가 갑절로 이루어진 특이한 장미로, '데일리 스케치'와 '임페커블'을 교배한 종이다. '데일리 스케치'는 핑크색과 은색의 뽀뽀한 송이들을 가진 큰 겹잎 장미이다. 반면, '임페커블'은 진한 빨간색을 띄고 있다. '임프'라는 이름은 '임페커블'의 앞 세 글자를 따왔으며, 오늘날에도 '임프'는 품평회의 챔피언 리본으로 쓰인다. 영국에서 태어난 조지 다우슨은 1928년 24살의 나이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오기 전까지 장미 눈접(rose budding)하는일을 했다. 그는 빅토리아 주 멜버른의 한 동네(Ferntree Gully)에서 시판용 채소 농원을 세워 재배종을 팔았다. 1966년, 그는 62살의 나이로 시판용 채소 농원을 그만두고, 번입(Bunyip)으로 이사를 가, 장미 재배 일에 더욱 몰두했다. 성수기 시즌에는 한 계절에 20,000개의 씨앗을 뿌려 좋은 품질의 장미를 생산했다. 그는 색깔과 향을 가장 중요시 여겼지만, 좋은 형태의 장미 또한 재배했다. 조지는 초보자들을 항상 도우려 노력했고, 그의 로열티 다수를 빅토리아 장미 협회에 기부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노후에 조지는 양쪽 둔부 모두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미에 주치의 이름을 따와 '레이던칸'이라 지었다.



1965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스매니아 섬에 사는 리처드 왓슨에 재배된 '미니 왓슨'은 '디킨슨의 분노'의 자가수분 결과물로, 가장 특이한 종으로 꼽힌다. 윤기 있는 나뭇잎이 달린 작은 덩굴과 연어색을 띄고 있는 반 겹잎 꽃봉우리의 장미는 약간의 향도 있다. 이 장미의 이름은 브리더의 어머니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1916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난 리처드 왓슨은 1925년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스로 이주했다. 1951년 또다시 타스매니아 섬으로 이주한 그는, 장미에 관심을 갖게 되며 타스매니아 장미 협회에 가입한다. 장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리처드는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연례회를 위한 글을 썼고, 4가지 장미('일레인 홀만', '헤더 젠킨스', '머들란 코레이', '미니 왓슨')를 재배했다.



1958년 멜버른의 존 프리슬리가 재배한 '새틀라이트'는 일찍 개화하는 장미 종으로 아주 진한 진홍색의 겹잎 꽃봉우리과 윤광의 나뭇잎을 갖고 있는 소형 장미이다. '새틀라이트'는 '에디터 맥펠라인'과 '윌리엄 하비'를 교배한 종이다. '윌리엄 하비'는 진홍색을 띄며 향이 아주 강하고, '에디터 맥펠라인'은 은은한 핑크빛을 띄는 겹잎의 꽃이다. 브리더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러시아의 위성 이름을 따 장미 이름을 지었다. 존 프리슬리는 장미 브리더라기 보단 우연히 3가지 장미를 재배하게 된 행정직 종사자이다. 장미에 관해 조언을 구할 동료가 없었던 존은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협회를 만들어 1975년 취임해 2000년에 사임했다. 재임 기간 중 빅토리아 주 장미 정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 정원 설립은 식물 다양성 보장 제정 법안 통과와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연례회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존은 '오스트레일리아 장미 어워드'와 '국가 장미 협회 서비스 어워드'를 수여 받았다.

우루과이 장미

아름다운 우루과이 우표들은 Ines Diaz de Licandro로부터 받았는데 이름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글: 오성철 로자리안

후쿠야마 장미축제

지난 2016년 11월27일~30일 후쿠야마 장미회(Fukuyama Rose Society)의 한국방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2017년 5월 20일~23일, 2박3일 일정으로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후쿠야마 장미축제는 지난 1971년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그 후 장미가 후쿠야마를 상징하는 시화로 지정되면서 더욱 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차세계대전 원폭 피해 도시인 히로시마 바로 옆에 위치하는 후쿠야마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아픔을 장미를 통해 치유하고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장미마을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후쿠야마의 장미이야기는 서울로즈클럽 제4호 뉴스레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남, 로자리안과 로즈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비행을 마치고 히로시마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웠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환영인원이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던 점입니다. 한국에 이웃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해서 여러 번 일본을 방문을 하였으나 이렇게 직접 환대를 받으며 입국하기는 처음이어서 이런 풍경이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점은 인사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안에서였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갖가지 음료수와 간식들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런 섬세함이란!

후쿠야마 로자리안분들이 준비해주신 멋진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미축제가 열리는 후쿠야마 장미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후쿠야마 장미축제는 장미품평회, 분재장미전시, 해외유명 플로리스트 초대전, 지역주민퍼레이드, 체험장,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한일로자리안! 여인숙을 개조한 멋진 이탈리아 식당에서의 첫 식사! 정성 들여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해주신 세심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장미축제가 열리는 후쿠야마장미공원





우아한 스탠다드 장미

후쿠야마 장미축제는 장미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장미와의 만남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루어진 뜻밖의 인연이 더 애뜻하고 기억에 오래 남듯이 새로운 장미와의 만남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아하고 우아한!

첫 번째, 스탠다드 장미와의 만남

너무나 다양한 품종의 장미들과 그 수에 놀라며 장미공원을 둘러 보았습니다. 일본의 장미품종들이 주로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공들여 키운 스탠다드 장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직접 본적은 없고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책을 통해서만 접해와서 직접 보니 그 매력에 놀랐습니다. 관목인 장미를 교목인 듯 길게 뻗은 가지 위에 탐스럽고 우아하게 만개한 장미를 보는 것은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에서도 스터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탠다드 장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쿠야마 장미회 회장님의 장미책자 설명

너무나 작은!

두 번째, 분재장미와의 만남

공원 한 켠에는 분재장미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었습니다. 미니장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니장미보다도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분재화분 위에 있는 작은 장미 하나하나마다 장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미분재를 접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장미의 세계로 들어간 듯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역시 언제나 새로움은 낯설지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후쿠야마장미공원

장미품종도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장미를 가꾸는 어려움을 알기에 무엇보다도 풍성하고 건강한 장미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다양한 분재장미



저의 검지 손가락 첫 마디보다 작은 장미



잊을 수 없는 장미와의 만남

후쿠야마 장미축제에서 잊을 수 없는 장미를 만났습니다. 뵘에르 드 롱사르(Pierre de Ronsard)와 더블 딜라이트(Double Delight)입니다.

장미축제가 열리는 공원을 거닐 때 눈의 띄는 장미덩굴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탐스럽게 흰색 트렐리스를 감싸 올라가 있는 장미였습니다. 뵘에르 드 롱사르! 첫눈에 사랑에 빠지듯 이끌려 눈을 땔 수 없던 장미, 불어를 전공한 저와의 운명과의 같은 만남 아니었을까요? 뵘에르 드 롱사르(1524-85)는 16세기 프랑스의 대표 시인입니다. 서정시를 주로 썼던 롱사르의 아름다운 시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장미입니다. 사랑하고픈 감정이 저절로 생겨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뵘에르 드 롱사를 두고 올 수 없어 한국에 올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했는데 저희 분당사무실 옥상에서 살고 있는 롱사르는 5월 달 한번의 개화만을 한 체, 아마도 주인 탓 이겠지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장미는 더블 딜라이트 (Double Delight)입니다. 장미품평회가 열리는 센터에서 만난 더블 딜라이트는 처음에는 왜 이름이 더블 딜라이트 일까하고 잠시 의아했습니다. 꽃잎은 화려한 다홍색과 연노랑색의 조화로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기를 맡아보라는 말에 코를 가까이 댄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향수의 주인공 그르누이의 욕망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꽃대가 꺾여 꽃병에 꽂아져 있던 장미에서 그렇게 강렬하고 화려한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왜 이름이 더블 딜라이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배의 즐거움! 향기를 맡아보니 더블로는 부족한 이름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장미가 주는 즐거움이 물론 보는 것 뿐이 아닌 향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 줄 몰랐습니다. 향기를 이 글을 통해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품평회장을 나오기 전까지 몇 번 이고 다시 가서 향기를 또 맡고 말으면서도 떠날 때는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더블 딜라이트로 만든 향수.(엠마뉴엘 웅가로의 아빠리시옹 스카이)가 인기도 좋다고 합니다. 향수매장에 가면 더블 딜라이트를 만날 수 있겠지요? 언젠가는 저희 옥상정원에 탐스러운 더블 딜라이트를 꽃피워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뵘에르 드 롱사르(Pierre de Ronsard)



비행기 타고 온 뵘에르 드 롱사르, 분당

더블 딜라이트(Double Delight)



장미품평회가 열리는 센터내부



홈센터의 정원용품파트0



장미축제 퍼레이드



폐교를 이용한 언덕 위 장미 외관



장미원의 건물형태를 이용한 홍보물

홈센터 방문

2박3일의 짧은 일정 탓에 두 번째 날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후쿠야마 시내에 위치한 홈센터_주택자재전문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원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인데 그 종류도 다양하고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 도구, 비료 등이 구비되어 있어 부러웠습니다.

거리퍼레이드

한 손에 정원용품을 한 보따리 들고 장미축제기간 중 펼쳐지는 퍼레이드를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별다른 치장이나 부담 없이 즐기며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제동원이 아닌 정말로 자발적인 참여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랄까요? 길거리에 편안히 앉아 퍼레이드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도 장미축제를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과 어우러져 소박하게 즐기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폐교된 옛 목재건물을 이용한 매력적인 꽃집, 언덕 위 덩굴장미

(720-0402 Hiroshima-ken, Fukuyama-shi, Numakumachō Ōaza Nakasanna, 沼隈町中山南2127-1)

장미 묘종과 여러 종류의 초화, 그릇, 화분 등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소품을 파는 곳으로 후쿠야마 시내를 벗어나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다 산길로 들어가야 하는 시골 농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들릴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목재건물인 폐교를 이용하여 멋스럽게 조성된 정원샵입니다. 새로운 정원샵의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장의 센스와 자신감을 엿본 좋은 답사였습니다. 장미는 물론 홀룡했습니다! 데이비드 오스틴, 게이세이 장미와 장미에 어울리는 화분 및 초화도 함께 볼 수 있어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쁜 소품들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분, 장갑 등을 구매한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언덕 위 덩굴장미

장미와 서일본제철소

일본의 최대 스틸생산지인 서일본제철소는 후쿠야마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쿠야마에 있는 만큼 장미로도 유명한데 같은 제철소인 포항제철과의 인연으로 포항제철소 안에도 장미원이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올해 영일대 장미원 개장과 함께 장미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후쿠야마 장미축제 거리 퍼레이드 및 장미품평회에 포항시가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우연한 마주침에 반가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철소와 장미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가 장미를 통해서 이렇게도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반가웠고 장미가 갖고 있는 문화, 사회적인 역할이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더 폭 넓고 강력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후쿠야마 장미축제 방문을 마치고

짧은 2박3일, 한 시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던 알찬 방문이었습니다. 나머지 회원님들을 뒤로 하고 먼저 귀국하게 된 것이 아쉬웠고 기회가 된다면 축제에 함께 하지 못한 서울로즈클럽 회원님들과 다시 한번 방문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며 글로 정리하니 후쿠야마 장미축제를 한 번 다시 갔다 온 기분입니다. 2017년 5월에 만난 장미가 더 깊게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서울로즈클럽이 새롭게 기록하게 될 장미이야기가 기대되는 장미축제방문이었습니다.

글, 사진 ; 김수연 로자리안



제철소 경계의 장미병풍



대한민국상을 수상한 장미



퍼레이드에 참가한 포항시민과 관계자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백설기 앙금 플라워 케이크



백설기

재료 - 맵쌀가루 600 g, 물 적당량, 설탕 60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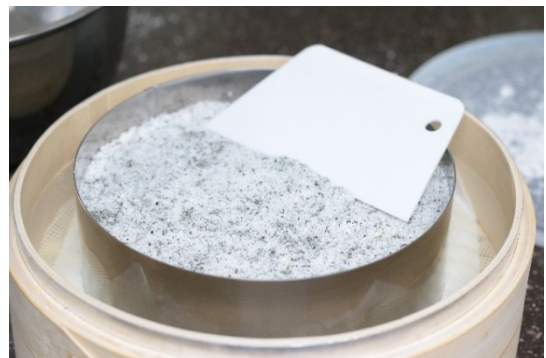
도구 - 1호 사이즈 무스링, 대나무 찜기, 물솥, 중간체, 시루밀, 키친타올, 스크래퍼, 볼 2개



쌀가루에 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의 양은 3~4큰술을 먼저 넣고 섞은 뒤 한 줌을 쥐어 부서지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추가합니다. 물주기가 완료된 쌀가루를 체에 2번 내립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어 뭉개지지 않도록 합니다.



체에 내린 쌀가루에 설탕을 넣습니다. 보통 쌀가루의 1/10 정도 분량의 설탕을 넣지만 단 맛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가감합니다. 찜기에 키친 타올을 깔고 그 위에 시루밀을 깔아준 뒤 1호 사이즈 무스링을 넣어줍니다.



무스링에 쌀가루를 채워 넣고 스크래퍼를 이용해 윗면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물솥에 물을 절반 가량 채우고 물을 끓인 뒤 찜기를 올립니다. 센 불에서 20분간 찌고 불을 끈 뒤 5분간 뜸을 들입니다.



떡이 완성되면 무스링을 빼고 큰 접시에 찜기를 대고 뒤집어 떡을 꺼내줍니다.
시루밑과 키친타올을 제거하고 옆면을 떡의 높이보다 0.5~1 cm 가량 높게 무스링을 둘러주면 백설기 떡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떡케이크 위로 우유를 약간 섞어 묽게 만든 앙금을 무스링 높이까지 채워 앙금플라워를 올릴 준비를 합니다.

앙금 플라워

재료 - 춘설앙금, 식용 색소

도구 - 앙금플라워 깍지, 찰주머니, 커플러, 꽃받침, 꽃받침 거치대, 꽃가위, 쟁반

준비한 앙금에 식용 색소를 섞어 원하는 컬러의 앙금을 만듭니다.

찰주머니 끝을 자르고 앙금플라워 깍지와 커플러를 끼워 넣습니다.

찰주머니에 적당량의 앙금을 채워 넣고 꽃받침 위에 원하는 꽃을 짜 올립니다. 완성된 꽃은 꽃가위로 들어 올려 쟁반에 옮겨둡니다.

꽃 짜기가 완료되면 미리 만들어 둔 백설기 케이크 위에 배치하고 케이크를 완성합니다.



글 : 김치영 로자리안

우리 고전에서 엿보는 장미, 그리고 장미문화



라 프랑스, Hybrid Tea

조선시대 문헌에서 옛 선비들은 꽃과 나무를 벗 대하 듯 하면서 절재의 생활관과 품미의 미학관을 가졌는데 장미(薔薇)를 가우(佳友)라고 하고, 야생장미인 해당화(海棠花)를 정우(靚友), 그리고 정원장미 혹은 분화장미로 가꾼 사계화(四季花)를 운우(韻友)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벗", "단장을 한 벗", "여운이 남는 소리를 가진 벗"라고 표현한 바, 장미속(genus Rosa)의 화목들은 우리 선비들이 대체적으로 여인을 지칭한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장미를 장춘화(長春花)라 하였는데, 이는 인생의 봄인 젊음이 오래 가길 염원하고 은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여인의 아름다움이 오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을 관조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우리의 야생장미인 찔레(Rosa multiflora)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름 지어 진 것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 더러는 매괴화(玫瑰花)가 찔레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찔레는 우리와 오랜 세월 애환을 같이한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은 화목인데도 불구하고 원예서의 화목품계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찔레꽃이 지천에서 보는 들꽃이라 여겨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조선시대의 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른 민화 전시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장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명쾌하지 않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장미 종류들이 나열되고 있다..

장미와 관련하여 최근의 민화 해설이나 관련 서적에 나타나는 이름은 장미, 매괴화, 월계화(月季花), 사계화, 해당화, 월월화(月月花), 월월홍(月月紅), 월월개(月月開), 장춘화, 보상화(寶相花) 등이 있다. 민화 해설서에는 장미류(薔薇類)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옛 장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농밀하게 그 어원이나 종류를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옛 장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장미는 서양의 꽃이라는 인식하고 있지만 장미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미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중국의 월계화(Rosa chinensis)가 18세기 후반에 서양으로 넘어가 1867년 최초의 현대장미 La France가 출현한다. 이는 사계성의 인자를 가진 동북아의 장미가 여름 한 철 꽃을 피우는 서양의 고전장미(Old Garden Rose)와의 교잡을 시작한 19세기 초반 이후, 많은 육종이 거듭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에게 언제부터 장미는 장미의 이름으로 존재했을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은 월계화가 현대장미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미대국으로써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인 발판을 굳혀가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옛 장미, 야생장미, 그리고 사계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월계화와 우리의 사계화가 같은 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강희안(1419~1464)의 양화소록과 유박(1730~1787)의 화암수록 등의 원에 관련 문헌에는 우리나라의 사계화가 중국의 월계화와 같은 꽃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장미는 지구의 북반부(Northern Hemisphere)의 야생에서만 자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미의 기원을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북아가 가장 유력한 기원지로 대체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J. Potter).



특히 동북아의 캄차카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동북을 잇는 지역은 야생에서 연중 반복해서 꽃을 피우는 인자를 가진 원종 장미(species rose)인 *Rosa rugosa*(해당화)가 자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계성 야생장미의 서식지이다. 그러므로 이런 개화를 반복하는 야생장미가 정원으로 들어오면서 오랜 시간 진화하여 정원장미가 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장미 중에 월계화, 사계화로 불리는 사계성 장미의 품종이 동북아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장미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장미가 있었을까?

고전을 통하여 나타난 장미는 신라시대 신문왕(681~692)의 청으로 설총이 지었다는 삼국사기 제 46권 열전 제6편 설총전의 화왕계(花王戒)에 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장미 존재 시대에 대한 첫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꽃 나라를 다스리는 화왕(花王) 모란은 야망 있는 신하 장미를 사랑하였다가 뒤이어 나타난 할미꽃의 간곡한 충언에 감동한다는 임금의 도리를 의인화한 단편산문이다.

그 후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한시 장미(薔薇)에서는 장미의 꽃술과 가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림별곡(翰林別曲, 1214~1259) 제5장에는 황자장미(黃紫薔薇)가 나타난다. 또한 조선시대 성현의 약학계범(1440~1450)에는 황홍장미(黃紅薔薇)에 대한 소개가 있고,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황장미(黃薔薇)를 노래한 시가 있다.



'Park' Yellow Tea-scented China

황색장미의 출현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헌에 의하면 노란색 장미가 고려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서양에 노란색 장미가 출현한 것은 18세기 이후가 될 것이다. 문헌에서는 야생에서 노란색 장미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세기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였으며(P. Beals)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황색장미가 육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18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월계화가 유럽으로 유입되는데 그 중 하나인 'Park' Yellow Tea-scented China가 노랑 장미였다. 그렇다고 하면 서양에서 노란색 장미가 출현한 것은 18세기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13세기 고려시대에 황색 혹은 황자색, 황홍색 장미가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Park' Yellow Tea-scented 같은 우리의 노랑장미, 그 우리의 heritage rose가 과연 어떤 품종이었을까?

사계화는 월계화와 같은 꽃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문헌에 나타나는 장미를 볼 수 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이나 유박의 화암수록에서는 화목을 운치나 변화함을 기준으로 품격에 따라 등품(9등제)을 나누었는데 대체적으로 장미는 중간의 품계(5품)에 속하였으며, 사계화는 상위 품계(3품)를 지녔다.

이는 꽃의 변화함으로 평가한 장미 보다는 매 계절 정기적으로 꽃을 피우는 사계화의 운치를 높게 인식한 우리 선비들의 꽃을 대하는 생각과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특히 강희안은 한양의 관직 생활에서 고향 마을에 핀 사계화의 경관을 늘 그리워하였다. 이렇듯 사계화는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 한다.



뿐만 아니라 김시습(1435~1493)의 매월당 시집, 김인후(1510~1560)의 하서전집, 신경준(1712년~1781)의 순원화취집 등의 문헌에서 우리는 우리의 헤리티지 장미인 사계화에 대한 옛 장미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옛 그림인 심사정(1707~1768)의 현원합벽첩, 강세황(1713~1791)의 해당, 장승업(1843~1897)의 초원지록 등에서 우리는 장미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장미(薔薇), 매괴(玫瑰), 월계(月季) 이렇게 세 가지로 장미를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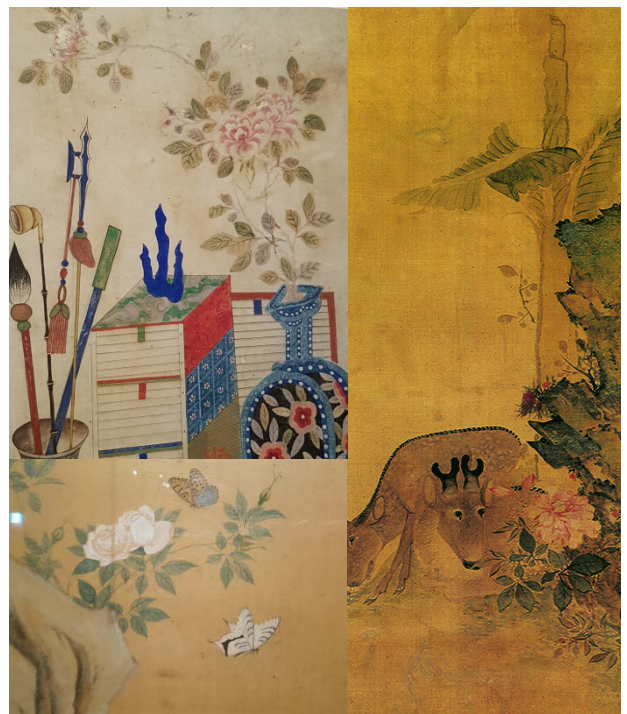
중국에서의 장미라고 하면 야생장미를 말한다. 우리가 옛 문헌을 보면서 혼돈스럽게 생각하면서 장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찔레를 뜻한다는 매괴는 중국에서 해당화를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의미의 정원장미는 월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는 장미는 야생에서 자라던 들장미일까? 그리고 우리의 사계화가 정원장미일까? 오늘의 우리들 의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최근 조선 민화의 사회적 재조명의 추세에 편승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옛 장미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나열되고 있는 장미류에 대한 해설과 판독을 위해 관련 미술계 관계자들과도 토의하고 상호 교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글: 김옥균 로자리안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천사장미공원

곡성군 관광문화과 기형민



조성 과정

1933년에 건립된 곡성역이 철도 개량화 사업에 따라 1999년 전라선이 복선화되면서 신역사로 옮긴 뒤, 곡성군은 구곡성역과 구철로(폐선)를 활용한 기차마을의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성 초기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등 기차 관련 관광 거리를 중심으로 개발하였지만, 기차 외에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 아이템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전남대, 호남대 교수 등 전남 화훼 전문가 6명이 방문하여 천적곤충관 주변을 장미동산을 조성하자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천적곤충관 주변에 시범적으로 2007년 11월경 4,000여주 식재하였고, 이는 더욱 발전하여 전국 최대 규모, 최다 품종의 장미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장미공원의 조성 과정은 작은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도전의 과정이었고 모험이었다. 그 과정에서 전문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2008년 본 고장 출신인 심우경 교수(고려대학교 조경학)의 설계로 공원의 틀이 마련되었다. 구곡성역을 중심으로 조성한 기차마을 단지 내 기존 논땅을 매운 40,000㎡의 부지에 장미공원 부지를 마련하고, 그 안에 연못, 정자, 유리온실, 분수, 전망대, 야외무대, 장미터널, 미로원 등의 시설과 함께 수많은 장미를 관람할 수 있는 기차마을 고유의 장미공원이 설계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미공원 조성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장미 품종 확보에 힘써 사랑의 상징 '천사'와 음이 같은 1,004개 품종을 수집해 식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천사장미공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9년 독일 현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계통의 장미를 2009년 5월과 12월에 나누어 수입하여 식재하였는데 당시 국내에 보유하지 않은 품종을 유럽에서 바로 도입하다 보니 국립식물검역원의 통제 하에 현지 격리재배 과정을 거쳐야 했고 수많은 장미를 단 두 차례에 나누어 수입하여 식재하는 과정은 흡사 군사작전을 연상할 만큼 치열한 과정이었다.

현재 본 장미공원의 관리 방법은 독일의 장미 전문가인 에발드 리비히(Ewald Liebig)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장미 식재 당시 그의 지도로 화단 내 품종을 배식 설계하였고, 3차례에 걸쳐 한국에 방문하여 곡성에 머물면서 현장에서 장미 식재 및 생육 관리 기술을 이전해 주었다.

장미 식재 후 겨울에는 소나무가지를 수급하여 모든 장미묘목을 덮어서 월동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 가꾸었으며, 이후 장미가 완전히 활착하기 까지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마침내 2011년 5월 섬진강기차마을 유료화와 동시에 정식으로 장미공원이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6월에 '제1회 곡성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장미공원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기차마을 장미공원의 특징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의 특징은 먼저 장미 품종에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장미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다른 장미공원의 경우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나 플로리분다(Floribunda)계열 중심의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차마을 장미공원은 목장미(Stantadrd)나 지피형장미(Ground Cover) 등 다양한 계통의 장미를 볼 수 있으며, 관목류(Shrub) 계통 중에서도 현대 장미 이전의 독특한 형태의 장미도 관람할 수 있어 일반관광객은 물론 장미 애호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미의 육종 국가별로는 11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고 그 중 독일의 Kordes와 Tantau, 프랑스 Meilland의 품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장미는 ADR 인증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품종을 중심으로 수입하였고, WFRS 명예 입상 장미 '더블 딜라이트' 등 10개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에 개발한 정원장미 '그랜드마치'와 '프린스가든'도 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식재하여 실증재배 관리 중에 있다. 조성 당시 1,004개 품종 37,000여주의 장미를 식재하였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미품종을 추가 식재하는 등 보다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미공원은 대부분 평면 기하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형적인 모습과 자연적 모습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된 것도 특징이다.

장미화단 옆에 유유히 흐르는 계류를 끼고 수목들이 우거지고 옆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은 독특한 경관을 자아낸다. 또한 국내 다른 장미공원은 화단의 형태가 폐쇄적이지만 중앙부분 장미 화단은 그 경계를 잔디로 처리하여 장미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장미공원의 양 끝 부분에 전망 공간을 배치하여 넓은 장미공원에 화려하게 핀 장미화단을 조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계절의 여왕 5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까지 매년 5월에 장미축제를 10일간 개최하고 있다. 축제 기간 방문객은 해마다 증가하여 금년에는 총 2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입장료 수입만 681,158천원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곡성군의 인구가 3만4백 명이니 9배 가까운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 장미축제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야간 개장에 맞춰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장미향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축제가 끝난 후에도 6월 중순까지 아름다운 장미를 여유롭게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전라남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남지역 22개 축제에 142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으나, 유일하게 흑자 수익을 낸 축제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로 나타났다.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을 넘어 수도권 관광객까지 찾는 성공한 5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축제의 주인공인 기차마을 장미공원도 전국 제일의 장미공원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앞으로의 장미공원

정원장미는 그 꽃의 모양과 색상의 아름다움, 매력적인 향기,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성질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정원 식물이다. 그래서 장미공원은 관광 소재로서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8년 전국 제일의 장미공원을 목표로 시작한 기차마을 장미공원이 조성된 이후로 전국에 크고 작은 장미원과 장미축제가 기획되고 있다.

관광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관광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장미공원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장미 품종 유전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 다시 찾는 장미공원이 되는 것이 현재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정원장미를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과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기법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미를 가꾸면서 아쉬운 점은 장미축제 때 무분별하게 난입하는 관광객에 심하게 훼손되는 장미들이다 장미 감상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그 문화를 선도할 장미 애호인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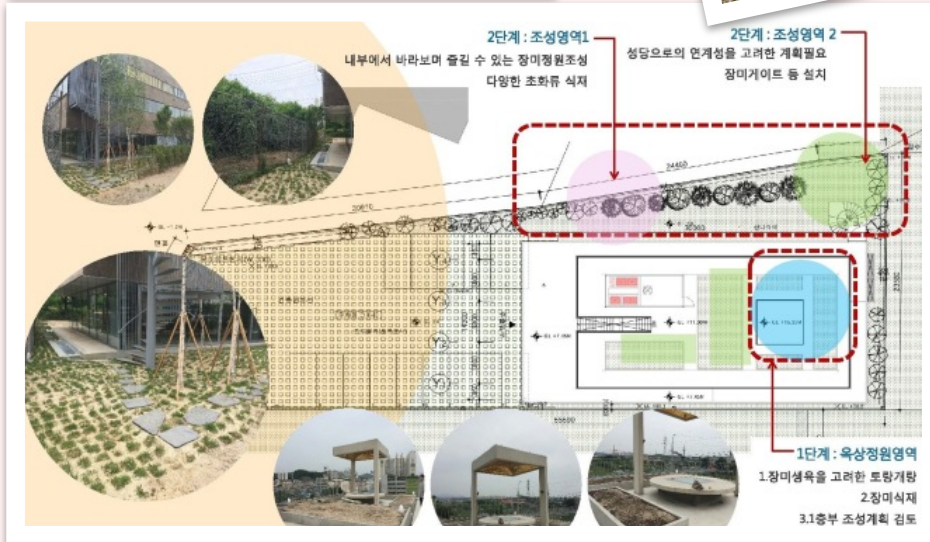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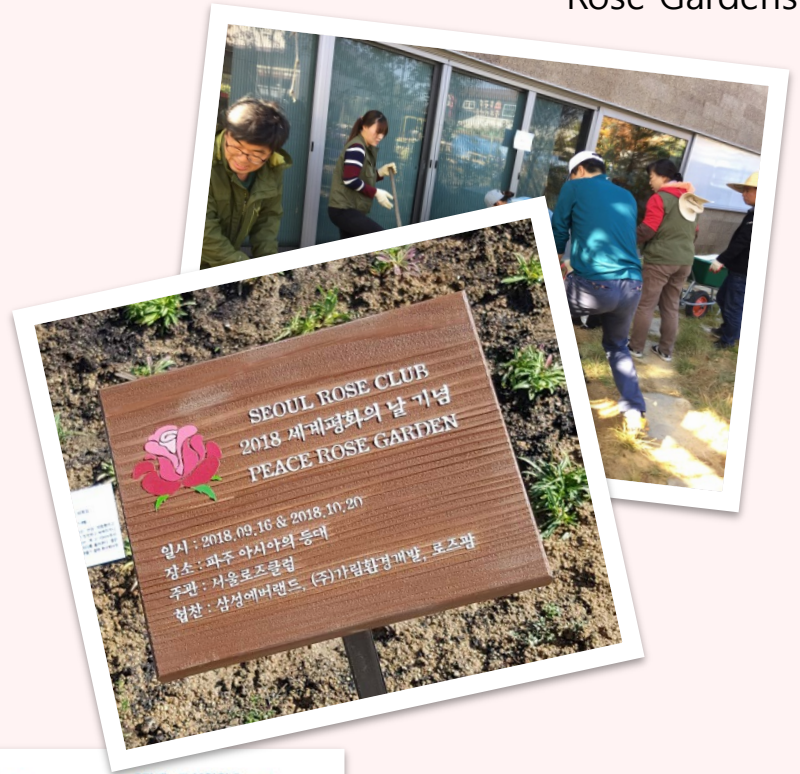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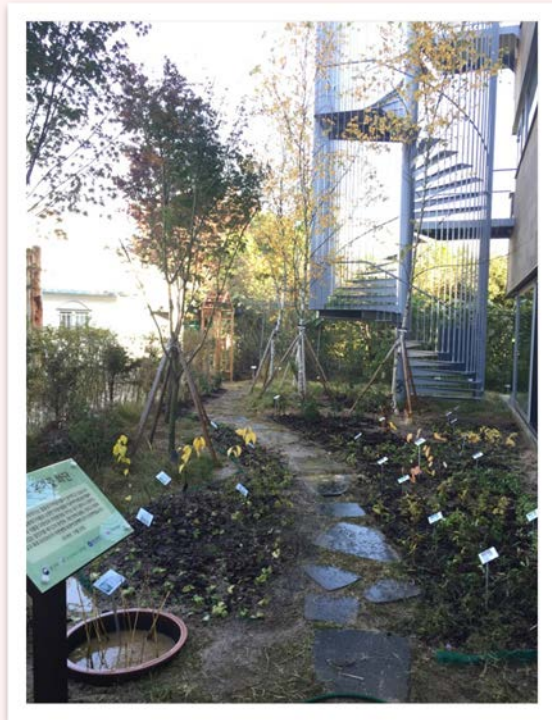
2018 PEACE ROSE GARDEN



서울로즈클럽은 9월 21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World Peace Day)을 기념하여
평화의 염원을 담아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장미정원을
이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 파주 아시아의 등대에 조성해 드렸습니다.

물론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장미로 평화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화는 거창한 세계 평화가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의 소소한 의미를 담아서 한 그루의 장미가 오늘을 사는 고단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평화정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입구의 장미아치는 아시아의 등대 예전 집에도 있었던 향수가 담긴 구조물입니다.

아시아의 등대는 이런 평화의 의미가 담긴 곳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타국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심의 기능을 조금 보태었으면 합니다.



조성프로젝트

1단계 : 옥상 정원 영역

장미 생육을 고려한 토질개량
장미 식재

2단계 : 1층 정원 영역

입구에 장미아치 제작설치
장미와 초화류 식재

“2018 Peace Rose Garden” 함께 해주신 분들

- 삼성에버랜드, 로즈팜, 서울장미원 :
Hybrid Tea roses, Shrub roses, Floribunda, Climbing roses 등 다양한 장미 120주 기증
- 한택식물원 : 매발톱, 금낭화, 미선나무 등 자생식물 1500주 기증
- (주)가림환경개발 : 친환경토양개량제(바이오그로-쏘일2) 20kg 50포기증
- 번성하우징 : 적삼목 장미아치 제작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 서울로즈클럽 모든 회원분들



카카오 같이가치 통해 장미아치 예산 모금

글 : 이현정 로زاری안

장미, 평화 그리고 PEACE ROSE GARDEN

서구의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미의 언어는 많은 의미로 상징되고 은유되었습니다.

순결, 비밀의 서약, 흐르는 인생의 덧없음으로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러는 사랑을, 삶의 쾌락을, 침묵을, 죽음 그리고 성스러움과 축복을 함축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장미는 평화와 희망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면 평화의 뜻을 기리는 장소에서 우리는 장미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대현동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안치한 UN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미를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가꾸어 이분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Ground Zero,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해 파괴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World Trade Center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곳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억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도 한 송이의 장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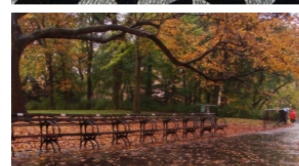
평화를 노래한 가수로 우리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을 기억합니다. 그의 노래 이메진(Imagine)은 평화의 메시지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서쪽 Strawberry Fields에 존 레논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언제나 장미가 놓여 있었던 이곳은 IMAGINE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장미를 두고 갑니다. 그가 사람(People)과 평화(Peace)를 음유 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I Have a Dream"으로 기억되는 Martin Luther King 목사는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끈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 아틀란타의 Auburn Avenue에는 킹 목사의 생가와 Martin Luther King Memorial이 있습니다.

킹 목사의 평화주의를 기념하는 "I HAVE A DREAM WORLD PEACE ROSE GARDEN"이라는 작은 장미 정원도 함께 킹 목사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원에는 미국 여러 지역의 희망 학생들이 장미를 한 그루씩을 기증, 식재하는 방식으로 그를 추모하고 생전의 활동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스 로즈('Peace' Hybrid Tea Rose)는 프랑스 메이앙(Meilland)이 육종한 가장 상징적 현대장미입니다.

피스 로즈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상징하는 장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merican Rose Society는 최고의 장미에 수여하는 All American Award를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1945년 메이앙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1945년 5월8일 독일이 항복에 서명하고, 49개국의 국가대표들이 UN창설을 위해 회동했을 때 미국장미회는 대표단에게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피스 로즈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는 로자리안들에게 의미 있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장미는 평화의 메시지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장미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회화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Roses of Peace는 2012년 시작된 종교를 초월하여 Peace, Love, Harmony를 표방한 젊은이 중심의 사회운동입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의 복합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관점에서 장미를 통한 젊은 Peace Ambassador 육성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미의 평화적 함의를 기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즈클럽의 기부정원행사는 9월 21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에 즈음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ace Rose Garden으로 정원을 이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장미로 평화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화는 거창한 세계 평화가 아니라 소박한 사람들의 소소한 의미를 담아서 한 그루의 장미가 오늘을 사는 고단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평화정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8 Peace Rose Garden"으로 기부한 아시아의 등대는 이런 평화의 의미가 담긴 곳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타국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쉼의 기능을 조금 보태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곳을 후원하고 있는 지역 천주교회는 특별히 프란체스코 성인을 추념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평화의 표상이 되는 분일 뿐 아니라 장미와도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태리 북쪽,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근의 Perugia와의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을 좋아해서 아시시 인근 숲속의 폐허된 San Damiano 교회 에서 교회를 다시 지어 달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과 빵 만으로 금욕적인 삶을 시작한 프란체스코 성인은 욕정을 이기지 못해 장미 덩굴에 몸을 덩굴기도 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이 가시 없는 장미를 만들었다는 장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 R. canina 'Assisiensis'입니다.

우리가 조성한 2018 Peace Rose Garden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태리 북부 Assisi에서 프란체스코의 장미, 로사 카니나 아시엔시스를 가져와 함께 식재하는 행사를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 : 김옥균 로자리안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장미의 사계

Chichy's Rose Garden

가을 화분장미 관리하기

높고 새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상쾌한 가을은 봄 이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장미가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가을 장미는 봄의 만개에 비해 꽃의 수는 적지만 한 송이의 크기가 크고 화형이 아름답습니다.

또,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꽃이 만개 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개화 기간 역시 길어져 오랜 시간 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늦장마, 태풍 등이 가을까지 이어지고, 겨울의 기온이 변화무쌍해지면서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 기후의 변화에 민감한 대처가 필요한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 대비로 인해 장미가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의 정원을 생각해 적절한 비료 시비와 함께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월동 대비에 유의 하도록 합니다.

‘ 9월의 장미 ’

<9월 초>

기상 이변으로 인해 9월의 기후는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거나 늦장마와 태풍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민감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 9월은 가을 장미가 피기 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에 신경 써야 하고, 꽃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웃거름 시비와 액체비료 엽면 시비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9월 중 ~ 말>

폭염이 끝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 되면서 잠시 주춤해 보였던 병충해가 폭발적으로 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통풍이 불량하고 그늘진 장소에서는 흰가루병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흑반병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꽃봉오리를 먹이로 삼는 애벌레 등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 시 가을 장미 만개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 10월의 장미 ’

<10월 초>

스프레이 및 플로리분다 장미를 제외한 큰 꽃이 피는 장미는 봄과 마찬가지로 꽃봉오리들 중 같은 자리에서 2개 이상 달린 겹봉오리를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행하는 것이 큰 꽃을 피우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레이디 오브 메킨치



티징 조지아



시스터 엘라자베스



레드 에덴



찰스 레니 메킨토시



골든 셀레이션



서 존 뱃재맨

<10월 중~말>

주기적으로 엽면시비를 시행하다가 꽃봉오리에 꽃잎이 보이기 시작하면 엽면시비를 중단하고 물에 희석해 관수하는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또 꽃이 필 때까지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수에 신경써야 합니다.

비 소식이 많지 않다면 멀칭재를 걷어내고 병든 잎과 오래된 재료를 제거한 뒤 햇볕에 건조합니다. 재 사용이 가능한 멀칭재는 완벽하게 말려 저장 후 월동 보온 시 사용합니다.

‘ 11월의 장미 ’

크고 아름다운 가을 장미가 피는 시기이자 연중 마지막 꽃이 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화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만개까지의 과정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겨울이 빠른 지역에서는 월동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핀 꽃은 시들더라도 가급적 데드헤딩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맺힌 열매는 장미의 내한성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겹꽃의 경우 붓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열매를 달리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면 가까이에서 나오는 어린 신장지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바짝 자릅니다. 가을 이 후에 성장해 충분히 목질화 되지 못한 줄기는 냉해와 동해 피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합니다.

추위가 시작되면 병에 걸린 잎을 모두 폐기하고 토양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겨울 전의 질소 비료는 냉해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내한성을 키우는 인산, 칼리 비료를 시비합니다.

토양이 얼기 전까지는 칼리 비료를 물에 희석해 관수 시비하여 뿌리를 강화 시킵니다.



장미품종



Colossal Meidiland (Meilland International, Floribunda , 1999 , 프랑스)

중간크기의 꽃이 만발한 관목 장미로서 건강한 습성과 아주 빠르게 정원을 덮은 능력의 장미로서 공공 장소의 식재에 아주 이상적인 장미라고 할 수 있다. 중간 크기의 꽃은 태양아래서 매우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데, 이 장미를 과소 평가하면 계획된 장소가 너무 좁게 되는 아주 넓게 퍼지는 강한 활력의 장미이다. 꽃의 지름은 7-8cm 정도이며, 개화는 풍성하게 사계성으로 피고지기를 반복한다. 또한 진한 녹색 잎은 곰팡이 균에 대한 저항성이 놀랄 정도로 강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장미의 높이는 120-150 cm정도이며, 질병과 추위에 대해 강한 저항력이 있다. 다만 향기가 좀 가벼운 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

Colossal Meidiland는 조경을 조성하는 조경 디자이너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주 귀중한 장미이다. 풍부한 장미의 개화성향은 공공 장소의 정원 가꾸기를 하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기에 Colossal은 멋진 개화와 함께 독특한 안정적 개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넓은 정원을 만들기 위한 장미를 선택할 때, 이 아름다운 형태의 장미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원이 작다면 이 장미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넘치는 장미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Rose Colossal은 녹색식물이 없는 도시에서 도로의 먼지와 도시에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가리는 탁월한 베일의 역할을 하면서 그 곳에 꽃이 만발한 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의 기분을 아주 환상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장미이기도 하다.

플로리번다/꽃잎 : 25 장/ 꽃 크기: 중형의 지름이 6-7cm /색깔 : 진한 빨강
식물 식재 간격 : m² 당 3-4 주 /곰팡이에 대한 내성 : 강함/흑성병에 대한 내성 : 강함
개화성 : 사계성 개화/자라는 높이 : 약 120 - 150cm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장미품종



La Favorite (HT)

1899 Marie-Louise (aka Widow,Vve) Schwartz

Madame Caroline Testout × Reine Emma des Pays-Bas

품종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려고 연대를 보다가 놀랐다.

대단히 오래된... 새로운 장미로 찾아 들어온 품종이다. 사이트의 사진은 신통치 않았지만 "오래된"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주문 해 보았다. 내가 원하는 꽃잎 색을 띤 핑크! 모양도 느슨하고 멋이 있어서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들었다. 그 당시 일본의 카탈로그나 그 이후의 품종 목록에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는 수입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품종. 혈통은 유명한 Madame Caroline Testout. 또 다른 혈통은 사후라노의 피가 들어간 월계화 같긴 한데 들어 본 적이 없는 품종이다. 여담이지만, 올해 봄까지 식물 보호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해외에서 장미 모종을 들여 오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출처 : 185호 일본 올드 로즈 앤 넝쿨장미 클럽 회보

번역 ; 이현정 로자리안

장미정원 디자인



정원에서 즐기는 다양한 장미의 아름다움

장미는 정원에서 큰 즐거움을 주는 식물이다. 향기부터 색상 그리고 꽃이 피는 모양까지 어떻게 정원에서 활용할지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한다.

정원의 공간 구성 시부터 향기를 강조할지 또는 벽체를 세워 장미의 화려함을 더 즐길지에 따라 공간도 달라진다.

장미정원 설계시 고려할 사항

설계 고려 사항은 품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관목형 장미는 70~90cm 간격로 식재해 장미가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관리하기 쉽도록 심는다.

장미는 보통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대는 호스를 설치하거나 호스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꽃을 자르거나 냄새를 맡기 위해 그리고 화단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하면서 흙을 단단하게 만들고 뿌리에 영양을 주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따로 추가하면 좋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관리 계획으로서 장미를 평행선상에 심는다. 이 선들은 일직선이거나 곡선일 수 있지만, 뾰족하게 심지 않는 것이 생육환경에서도 좋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다. 어떠한 장미정원이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미정원은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필요로 하게된다. 그래서 큰 장미정원들은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스탭들이 정원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유지한다. 단지 정원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고려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정원의 중앙 또는 모서리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점을 추가하여 장미 정원의 기하학적 또는 선형 형태를 강조 할 수 있다. 스탠다드 장미가 시각적 초점으로 사용될수 있고 주변보다 강한 색상의 장미를 식재, 또는 필라 형태의 구조물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당신이 정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정원 디자인에 영향을 주게된다.

혼합 식재를 통한 장미정원도 좋다. 영국식 시골 정원은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섞여 넘쳐나고 “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서로 뒤섞여 있지만, 이는 실은 많은 정원사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지고 있다.

속지 마라! 영국식 시골 정원은 다른 어떠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계획되었으며, 식물을 세심한 고려 없이 단지 간단히 식물을 추가하는 정원사는 없다.

장미는 대부분의 다른 식물과 잘 어울리고, 다른 식물군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향기를 더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키가 큰 식물들은 해를 가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장미와 함께 하는 다른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키, 폭, 개화 시기, 그리고 필요로 하는 물의 양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장미는 가지치기, 비옥하게 하기, 물주기, 그리고 겨울 동안 보호하기 등 정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다른 식물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를 고려하자.

각기 다른 시기에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의 색이 변하는 식물들로 이루어진 사계절 정원을 만든다.

꿈의 정원을 만들어 낼 때 창의적으로 생각을 발전시켜보자. 초기에 어떤 상상이든 좋다. 본인만의 장미정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상상해 보자. 만약 장미의 품종을 가지고 인물 또는 역사를 묶어 식재를 계획하는 것도 작은 장미정원 이라고 하더라도 늘 그 장미를 가까이에 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원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울타리 장미 및 경사지 식재

적당히 가파른 경사일지라도, 경사지는 문제되는 재배지가 아니다.

매력적인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면 거의 모든 종류의 장미를 위한 이상적인 재배지가 될 수 있다. 경사면은 이미 만들어진 배수로를 제공하며, 벽이나 제방은 개선된 토양으로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된다. 하나의 장미 품종을 많이 심는 것만큼 정원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없다. 그 밝은 색의 꽃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같지 않은 시선을 사로잡는 초점을 만든다.

울타리 장미 덩불이 얼마나 크게 커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깝게 심겨진 장미는 관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장미로 울타리를 치거나 둘레를 메우는 것은 우리집을 외부에서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또한 동물과 외부인들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어, 시각적인 사생활 보호 장벽으로 작용하며, 아늑한 느낌의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장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낙엽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울타리가 얼마나 높아야 할지, 어떤 종류가 매력적일지를 결정한 후, 덩불을 얼마나 가까이 심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울타리의 퍼지는 습성을 확인한다. 그들이 서로 가까이 심겨질수록 울타리가 더 빨리 채워질 것이다.

화분용 장미

어떤 장미든지 화분이나 다른 용기에서 기를 수 있다. 뿌리가 퍼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용기가 필요하다. 식물이 크고 성숙할수록, 용기는 더 커야 한다



용기 선택

모든 종류의 용기는 장미 재배에 사용될 수 있다. 토분은 정원에 알맞고, 나무로 된 목재 통은 소박한 정원에 어울린다. 도자기 또는 철제 소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화분 정원은 전체 정원에 아름다움을 더하지만, 건축의 재료 또는 화분과 함께하는 다른 재료들과의 질감도 고려해야 한다.

화분의 장점

화분에 심은 장미는 정원사들에게 시각적으로 제한이 없는 디자인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토양 상태나 배수에 대한 걱정 없이, 실질적으로 경치의 거의 모든 곳에 화분을 둘 수 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장소에 화분을 두고, 성장하는 계절 동안에는 태양의 변화에 따라 쉽게 옮길 수도 있다, 아파트 발코니 같은 작은 공간 안에 소형 또는 중간 크기 화분은 멋진 경관을 만들어 준다. 또한 탁자, 벤치, 또는 다른 높이 있는 곳에 화분을 두어 화분을 보기 위해 무릎을 굽히거나 꿇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화분 장미를 기를 수 있다.

화분 장미를 기르는 법

성공적인 화분 장미 재배의 기본은 다른 식물들의 그것과 거의 같다: 좋은 화분용 흙, 좋은 배수, 따뜻한 여름철 동안 거의 지속적인 물의 공급이다. 화분에서 자랄 장미는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하며, 하나의 화분에 계속 있는 식물은 2년마다 화분토를 바꾸거나 보충해야 한다. 병과 해충 관리,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고려 사항들은 땅에서 자라는 장미들과 사실상 같다.



글 : 이성현 로자리안

2018 WFRS Copenhagen Convention 방문기

동화속 장미를 만나러 덴마크로

덴마크의 장미와 세계의 로자리안들을 만나기 위해 장미 여행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여행은 세계장미회에 가입을 앞둔 여행이라 더 기대가 되었다. 몇 년간 혼자 몸으로 국제 대회를 다니며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준비해 둔 김옥균회장의 걸음이 감사했다.

특히, 세계 이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이름이 불리고 이사국 테이블에 한국 대표가 자리할때의 현장에서 느낀 감격은 혼자 느끼기에는 아까운 시간이었다. 총회 이후 세계 로자리안들의 축하의 메시지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또한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이제 세계의 로자리안들과 함께 장미문화를 배워가고 즐기는 시간을 생각하니 더 흥분되는 여행이 되었다.



덴마크 시청에서 시작한 개회식은 화려했다. 장미와 관련된 화려한 행사 진행과 시청 메인 광장에서 진행된다는 것도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로 이야기 하자면 서울시청 메인 광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미가 한 단체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러운 경험이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장미회 50주년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 특히 켈빈 회장의 기념 특강은 세계장미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강의가 되었다. 장미가 젊은 이들에게 젊은 문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시는 신선했다. 젊은이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장미문화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 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다. 더 다양한 장미문화를 만들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급하게 서둘러 갈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경험해야 할 장미문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내년 4월에는 장미를 만나기 위해 중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 장미문화와 산업을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기만 하다. 장미친구들이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나는 로자리안이다.



글 : 이성현 로자리안

덴마크 여행기

덴마크 하면 사람들은 문득 낙농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간 곳은 낙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북유럽 일대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꼽힌다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그 주변의 공원과 박물관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항구였다

운이 좋게도 내가 묵었던 호텔(티볼리 호텔)은 시청과 공원에서 매우 가깝고 항구도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상상으로도 가늠이 안되는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도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도 많이 보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카페와 바는 물론 세계수준의 박물관도 있었고 몇 분 거리에 해변과 우거진 공원이 있을 만큼 1~2시간 이면 충분히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1843년에 문을 연 티볼리 공원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월드 같은 곳? 아니면, 에버랜드 같은 곳이었을까? 하지만 규모도 커 보이지 않은 이곳에서 정원의 꽃도 만끽할 수 있었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었는데 코펜하겐 시청 건너편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 훌륭해 보였다.

화창한 날 뉘하운 운하 부둣가에 자리한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멋진 일이 있을까? 이곳 뉘하운에서 안데르손이 생의 대부분을 살았다고 하는 데 지금도 예술인들과 선원, 관광객들을 끌어 모은 다고 한다, 우리는 이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도 한 잔 마셨다.

코펜하겐은 어느 곳에 가도 값이 비싼 것 외에는 음식이 나를 괴롭힌 적은 없을 만큼 도시 곳곳에 15곳이 넘는 미술랑 음식점들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는 뉘하운 근처 미술랑 음식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이 만드는 수많은 요리와 와인을 맛보며 무려 6시간(다음날까지) 넘게 식사를 했다. 이 자리는 서울로즈클럽과 일본 장미협회 회원들의 만남의 자리였지만 영국과 덴마크를 돌고 있는 김수연 회원과 가족,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생신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일본 분들 사이에서 6시간이 회자 된다고 하니 정말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덴마크는 하루에 4계절이 있다고 표현할 만큼 변덕스런 날씨와 백야현상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시기에는 4계절만큼은 없는 화창한 날씨가 반겨주었으며 해변에서 에너지를 뿜어내며 수영을 즐기는 많은, 앳된 젊음이들은 코펜하겐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었다.

코펜하겐 시청에서 환대를 받으며 시작된 우리의 일정은 오전은 주로 강연, 오후는 장미가 심겨진 가든이나 성을 투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활짝 핀 장미 옆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최고의 장미를 뽑는 경연도 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만개한 장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정원투어 도중에 덴마크 건축가 핀올의 작품을 본 것으로 만족했다.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듯이 사람들은 코펜하겐 하면 아마 인어공주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조각상에 연신 카메라를 찍어대는 관광객들을 보며 절로 어깨가 들썩여 졌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행사를 했다(Closing Ceremony)

나는 항구를 따라 함께 걸으며 활력 넘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자유함과 신의 위대함을 보기도 했고, 골목 속 맛집을 찾아서 허의 갈증을 채우기도 했던, 친절하 현지인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따뜻한 느낌을 보기도 했던 코펜하겐에서, 그리고 여러 개의 상을 받는 일본인들이 있었던 마지막 행사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기도 했던 귀중한 순간들을 뒤로하며 돌아와야 했다.



글 : 황보순 로자리안

2018. 6. 28 ~ 7. 4 - 7일간의 덴마크 컨벤션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은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의 가장 큰 행사. 장미계의 올림픽이라 불릴만한 행사가 올해 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폭폭 찌는 여름이 시작된 한국을 잠시 떠나 장미와 함께 맑고 시원한 공기가 기분 좋았던 코펜하겐에서의 일주일의 꿈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유럽의 장미는 농장에서, 축제에서 또는 사진으로 많이 접해봤지만 실제 북유럽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했던 모습들을 평범한 도로 위에서, 식당 옆에서, 성이나 공원, 심지어 개인주택의 정원까지 투어하며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이었는데 다음 컨벤션때는 더 많은 로زاری안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총 7일동안 코펜하겐 시청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각국의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오후에는 투어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정도만 추려보려 한다.

첫 번째는 돌 바닥 길거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장미나무의 위엄. 뿌리를 어떻게 내렸을까 싶을 정도로 협소해 보이는 땅에서 어쩔 그리도 잘 자라나 예쁜 꽃을 많이도 피워줬는지 신기하고 기특했다.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의 벽면을 수놓듯 어울어진 모습은 길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아마도 장미의 강인함과, 사랑으로 돌보는 누군가의 손길, 좋은 날씨 모두 한몫 했겠지.. 무심한 듯 멋진 길가의 장미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도시풍경이기에 인상 깊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마다 매 다른 모습의 장미나무들을 만나면, 괜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우리도 시도해 볼만한 풍경인 듯 싶었다.



PM11. 저물지 않는 백야





An afternoon of celebration in Valby park



미술랭스타식당“Kornerupgaard” 다음을 기약하며



두 번째는 이번 행사의 제목에 맞게 바비파크 내의 장미정원에서 진행된 요정들의 패션쇼. 잘 정돈된 장미숲길을 요정들이 춤을 추며 광장으로 나아가는 쇼였는데, 음질좋은 BGM과 잘 어울어진 신비롭고 멋진 야외공연이었다. 맛있는 런치 박스와 와인을 곁들이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긴 이 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요정들이 시공간을 잊게 해주는 듯한, 동화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것 같다. 무엇보다 반짝이던 드레스들은 재활용된 비닐로 디자인을 한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었다. 멋지고 화려한데 친환경적이기까지 !! 장미정원의 또다른 공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장미를 사랑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였다. 우리는 장미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정원을 가꾸다가 이렇게 약속된 날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장미를 함께 공부하고, 투어하고, 느끼며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행복이 아닌가 싶다. 어떤 꽃을 좋아해도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보다 돈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장미의 역사, 장미의 아름다움, 장미의 강인함, 장미의 향 그 모든 것이 매력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장미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연결된 육종가, 교수, 생산자, 정원사, 장미 한그루를 키우는 사람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는 시간인 만큼,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긴~ 시간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일본 소사이어티 분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인상 깊었고, 미국에서 온 젊은 친구도 만나서 반가웠다. 다음 컨벤션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과 교류 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쉬운 안녕을...

각 국이 돌아가며 자신만의 장미를 보여주는 컨벤션 이라는 점에서, 과연 언젠가 보여줄 우리만의 장미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았다. 그 나라의 역사, 환경, 문화가 다르니 그와 조화되는 장미의 모습도 각기 다르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글 : 김아람 로자리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덴마크! 드디어 그곳에 한 발 내딛는 순간이 왔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2018년 로즈 컨벤션”의 첫날. 40개국의 600명 이상의 로자리안이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한 개막식이 코펜하겐 시티홀에서 치러졌다. 각국의 로자리안이 잔을 맞대며 축하하는 그때에 어느새 걱정은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다. 편안하지만 활력있는 코펜하겐의 거리 사이로 멋 스런 16세기로젠버그 성에서의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정말 꿀 맛이였다. 여기는 또 어디? 요정들의 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 바로 바비파크를 둘러보았다. 화려하지만 절제된 미를 뽐내는 장미들이 자기자랑을 하느라 아우성이었다. 이곳에서 작지만 몽환적인 뮤직컬과 패션쇼가 열렸다. 품미 좋은 와인이 내 입까지 즐겁게 채워주니 더 할 나위 없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장미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오후에는 잘 꾸며진 개인정원들을 방문하였다.

길목 길목에 가로수 대신 장미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덴마크 사람들의 장미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넷째 날,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사 대표님들을 한 자리에서 보게 된다! 이분들과 장미에 관한 변천사 그리고 장미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면서 내 부족한 영어공부에 대한 굳센 다짐도 하였다. 오후에는 풀 한포기도 허투루 심어지지 않은 듯한 “Fredensborg Palace”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우리 두 자매는 손가락에 불나뭇 셔터를 눌렀다.

멋진 날들의 연속이었던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각국의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이날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또한 개최국으로써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왠지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훌륭한 정원들과 여유롭던 덴마크에서 화려한 밤은 저물었다. 다음 로즈컨벤션에서는 더 많은 한국의 로자리안들과 함께하길 바라며..



글 : 김희람 로زاری안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2018 서울로즈클럽 소식



2018년 2월3일, 서울 로즈 클럽은 "멘토를 찾아서"로 출발했습니다.

2월3일 멘토이신 김건호 박사님을 만나러 천리포수목원을 찾았습니다

박사님의 생생한 설명에 차가운 겨울 정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워크숍을 진행하여 서울 로즈 클럽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3월 1일 오성철 김성자 회원님의 "보나카바"의 겨울 전정과 방제를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힘을 모았습니다. 5월 보나카바의 장미 정원을 기대해 봅니다.



4월 17일 올해 첫번째 정기 모임을 너싱홈 그린힐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옥상정원의 장미 품종에 알아보고 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옥균 대표님의 "장미의 기원과 분포" 강의를 듣고, 김수연 반장님의 2018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김명애님이 신입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더불어 서울 로즈 클럽의 새 단체복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첫발입니다.

글 : 이은주 로자리안

2018 서울로즈클럽 소식

0 2 / 0 3 멘 토 를 찾 아 서
0 3 / 1 7 토 요 모 임
0 4 / 2 1 토 요 모 임
0 5 / 2 0 일 요 아 침 정 원 산 책
06/02 장미정원에서의 차 한잔 그리고 올드 로즈
0 6 / 0 9 S p r i n g R o s e F e s t a
0 9 / 1 6 , 1 0 / 2 0 장 미 기 부 정 원 조 성
1 0 / 3 한 국 장 미 의 과 거 / 현 재 미 래
1 1 / 1 7 에 버 랜 드 겨 울 장 미 이 야 기
1 2 / 1 5 송 년 회



봄여름가을겨울호 | 2018. 12. 15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